



교양에 대하여

허 혜 경 | 강원대 교양학부장

작년 겨울에 남편과 미국 보스턴에 여행할 일이 있었다. 여행 일정을 마치고 남은 시간이 좀 있었는데 남편이 하버드 대학을 한번 보고 싶다고 했다. 남편은 학계에 있지는 않지만 말로만 들던 하버드 대학의 모습을 육안으로 보고 그 분위기를 피부로 느껴 보고 싶다고 하였다. 나도 흔쾌히 동의를 하고 함께 차를 몰아 하버드 대학으로 갔다. 꽤 늦은 시간이었지만 학교 캠퍼스 내에는 학생들의 모습을 간혹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학생들 중 아무도 서성거리는 사람은 없었다.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도, 삼삼오오 모여서 낄낄거리는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입은 옷에 멧을 부린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모두가 영리하게 생긴 모습과 그야말로 검소한 옷차림으로, 두꺼운 책을 여러 권 옆구리에 끼고 빠른 걸음으로 급히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그들의 빠른 걸음에는 촌각을 다투며 시간을 아껴야 하는 분위기가 물씬 풍겨 나왔다. 남편이 궁금해하기에 그들이 가는 곳을 먼발치에서 따라가 보았다. 그곳은 불이 환하게 켜진 도서관과 강의실이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그야말로 드높은 학문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뭔지는 모르지만 많은 감동을 받으면서 문득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학교의 캠퍼스와 도서관 모습이 눈앞에 오버랩 되었다.

중앙도서관 3층에 있는 내 연구실로 올라가려면 도서관 열람실을 경유해 가야 한다. 유리벽으로 되어있는 학생 자유열람실을 통하여 나는 매일 우리 학생들의 면학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분위기를 몸소 느끼고 있다. 그곳의 분위기는 소란스럽고 다소 들떠 있는 도서관 밖 캠퍼스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그리고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학생들은 느슨한 모습으로 캠퍼스를 배회하는 여느 학생들과는 학교 생활에 대한 자세가 다름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들이 주로 탐독하고 있는 책들은 젊음의 내적 갈등을 채워 줄 삶의 양식이 될 만한 것들도 아니고 자신의 전공에 관한 식견을 줄 만한 깊이 있는 전공서적도 아니다. 그들의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책들은 영어와 법학 등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것들이 주종이다. 목전에 현실로 다가오는 자신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내디더야 할 발걸음에 무언가 확실한 디딤돌 하나라도 더 놓고자 하는 치열한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그들에게서는 젊음의 아름다움도 강렬하게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그들의 내면에서 몸부림치는 고통도 함께 느낄 수 있다.

나는 '청년기 갈등'과 '자기 이해'라는 과목의 강의를 통해 우리 대학생들의 주된 갈등과 고민, 그

“

우리 대학생들의
 치열하고 현실적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세심 '대학이 그들에게 무엇이며, 무엇이어서 하는가?',
 '그들은 대학을 통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또 '대학생활을 통하여 변화되는 그들의 모습에 관하여
 대학은 과연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품어 본다.

”

리고 이를 극복하고자 에를 쓰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접할 기회를 비교적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다. 열띤 토론을 통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과 고통을 거침없이 털어 내어놓고는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해결책도 서둘러 내어놓을 줄 아는 현명하고도 아름다운 정신의 소유자들이 우리 대학생들이요. 바로 이 시대의 청년들이다. 그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들은 성(性), 자아, 학업, 진로, 부적응, 세대갈등 등 실로 다양하다. 특히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 지식에 대한 갈등, 즉 무엇을 공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생들은 많이 알아야 하고, 많은 자격을 획득해야 하고, 그를 통해 미래의 좋은 직업과 안정을 획득하고자 초조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생들의 치열하고 현실적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세심 '대학이 그들에게 무엇이며, 무엇이어서 하는가?', '그들은 대학을 통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또 '대학생활을 통하여 변화되는 그들의 모습에 관하여 대학은 과연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품어 본다.

대학의 본질은 '진리탐구를 과제로 모인 교수와 학생의 공동체'이고, 대학교육의 목적은 '심오한

학문의 연구'와 '지도자적 인격의 도야'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대학교육의 목표와 학생들이 서 있는 현실 사이의 괴리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과 대학 재학생들은 그들이 경험하고 살아온 과거 생활의 환경적 조건과 제약 그리고 그들이 장차 경험하고 살아가야 할 대학 생활의 현실적 조건과 제약 때문에 이러한 대학교육 본래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학생들이 성공적인 대학생활이라는 목적 달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안고 있는 현실적 장애요인은 크게 세 가지를 거론할 수 있다.

첫째는 대학입학 전까지 받은 교육의 영향이다. 대학 신입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겪고 거처온 우리나라의 중등교육과정은 입시 위주의 주입식·암기식 교육으로 특징지을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의 중등교육과정은 대학 신입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 입시 위주의 중등교육과정은 창의력과 의사소통능력의 배양을 도외시한다. 그런데 창의력과 의사소통능력은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이다.

둘째는 전공 위주로 편성된 대학의 교과과정으로 인한 영향이다. 대학교육의 목표는 '지도자적

“

새로운 과학의 개념이 눈부신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근대에 들어와서도 교육의 주된 목표는 인간성의 고양에 있었다.
 실용적인 교육과 전문인 양성이 대학의
 주요 과제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용적·전문적 지식의 일방적 강조는 결국
 대학을 좁은 '상품'으로 만들어 내는 단순한 인력 공장으로 전락하게 만들고,
 따라서 대학의 존재 의미 자체를 말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

”

자질을 함양한 교양 있는 전문가 집단의 양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교육에서 목표로 삼고 지향하는 인간상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교양을 갖춘 지성인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지식에 철저한 기능인의 모습이다. 이 두 모습은 개개 대학생의 내면에서 통일적으로 형성되어야만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경험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은 대학생활에서 '지성적 사유' 능력을 개발하여 인격을 연마하고 전문적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그러나 전공과목에 치우친 학문적 추구는 자칫 옹졸하고 시야 좁은 전문가 양성에 급급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현대의 대학교육은 지식의 전수나 문화창달의 기능뿐만이 아니고 미래 사회인으로서의 능력 배양을 강조하고 있다. 즉 미래의 사회를 힘차게 살아갈 전인적 인간-신체적·지적·정서적·사회적·도덕적으로 균형 잡힌 인간-을 양성하려는 의지적 노력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전공과목 위주로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교양교육을 경시하는 대학교육은 대학교육의 목표 지향과 어긋난다.

셋째, 청년기의 연령적 특징으로 인한 영향이다. 신입생들은 청년기라는 연령적 특징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인격적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로 보아서 대학생은 대체로 청년기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의 대학생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꿈꾸게 되며, 구체화되지 않은 그 무엇인가를 찾는 때이기도 한다. 대학은 한편으로는 낭만과 이상의 장소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치열한 현실의 세계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대학생은 치열한 현실보다는 이상과 낭만을 추구하며 우정과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과 낭만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를 캠퍼스 내에서 찾으려 하다가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면 그들의 심적 에너지(psychic energy)는 혼란을 느끼게 된다. 현실보다 이상이 중시되는 대학은 언제나 보수지향 학생과 급진지향 학생 간에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대학생 중 많은 수가 이념의 혼란 속에서 이상의 추구에 마비되어 방향 감각을 잃은 채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상당수의 대학생들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실의에 찬 생활을 하고 있다. 어느 학교의 경우 입학 당시 약 30%가 학과 부적응의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학교 자체에 대한 사회의 인지도 때문에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가 복합되어 대학생 중 상당수가 심리적 갈등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그러한 갈등의 연

유와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그 상황을 해석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갈등 상황에 대한 토로를 들어 줄 사람들, 그들의 갈등 상황을 이해해 줄 사람들, 그들의 갈등 상황을 함께 고민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대학교육이 그 본연의 교육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겪고 있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필자는 대학에서의 교양교육 강조를 주장한다. 즉, 필자는 최근 대부분의 대학 당국이 지나치리만큼 편향되게 전공을 강조하는 추세와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고시준비 열풍, 자격증 취득준비 열풍에 맞서서,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양'은 독일어로는 'Bildung'이라 하는데 이는 원래 '형성'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Culture'라 하는데, 이는 원래 '경작'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양'이라는 낱말에는 인간의 정신이 풍요로워지도록 그것을 갈고 닦아 원만하고 완전한 인격을 형성해 나간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새로운 과학의 개념이 눈부신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근대에 들어와서도 교육의 주된 목표는 인간성(humanists)의 고양에 있었다. 물론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변한 오늘날 대학의 사명이 여전히 이러한 인성·교양교육에 국한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용적인 교육과 전문인 양성이 대학의 주요 과제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용적·전문적 지식의 일방적 강조는 결국 대학을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 내는 단순한 인력 공장으로 전락하게 만들고, 따라서 대학의 존재 의미 자체를 말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

오늘날 대학까지 강하게 불어대기 시작한 상업주의 또는 시장논리는 대학교육을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수요자 중심교육' 운운하며 수요자로서의 학생들의 기호에 단순히 영합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인간과 마찬가지로 대학도 한발로는 설 수 없다. 참시는 버틸 수 있겠지만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 인간성의 고양을 추구하는 교양교육은 비인간적 전문인, 위험한 전문인, 천박한 전문인으로의 타락을 방지해 주는 버팀목이다. 인간다움의 기본이 닦여야 전문적 지식도 천박성·일방성·맹목성의 위험에서 벗어나 재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는 부제를 달고 나온 디트리히 슈바니츠의 『교양(Bildung)』의 서문에서 말했듯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죽은 지식과도 같이 여겨지고, 자신의 고통치는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흥미 없는 사실들의 나열처럼 여겨져 절망을 느껴 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허혜경

이화여대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건국대 대학원에서 교육과정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된 관심 영역은 인지발달분야이며 특히 비고츠키의 이론을 교육학의 실제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의 문제와 아울러 청년 및 성인의 발달문제에 관심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경원대 교양학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 및 논문으로는 「청년발달심리학」, 「성인지능의 본질 및 검사방법에 관한 연구」, 「Vygotsky의 ZPD이론에 기초한 교수-학습 방법」 외 다수가 있다.